재난안전교육 패스포트 2016

신문으로 배우는
재난대비와 생활안전

NIE 워크북 | 초등학생용

2016□□□□_□.indd 1 2016-06-15 □□ 4:31:43

차례

04 … 자기소개

05 … 신문지면 소개

06 … 활동 메모

활동 주제

08 … 조심해야 할 나의 등굣길

10 … 장난치면 다쳐요!

12 … 좌우를 살펴요

14 … 앗, 인도로 달리는 오토바이!

16 … 즐겁게 놀아요

18 … 안전띠는 생명의 띠

20 … SNS 폭력, 이제 그만

22 … 친구에게 욕설은 나빠요

24 … 내 몸을 만지면 안돼요

26 … 내 몸을 병들게 하는 담배

29 … 119 아저씨! 불이 났어요!

32 … 시간 잡아먹는 스마트폰 벗어나요

34 … 건물이 흔들, 어디로 피해야할까요?

37 … "아, 뜨거워"

39 … 신나는 여름, 안전한 물놀이

41 … VISA(확인서)

2016□□□□_□.indd 2 2016-06-15 □□ 4:31:43

일러두기
'재난안전교육 패스포트' 사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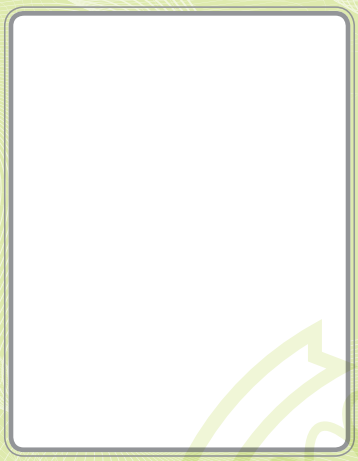
- '재난안전교육 패스포트 2016'은 재난과 안전에 대한 기사나 자료를 찾아 읽고 주어진 물음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펼칠 수 있는 **15개**의 다양한 주제로 정리해 묶었습니다.
- 활동 주제는 자신의 관심이나 흥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패스포트에 나온 주제를 모두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12개 이상**을 권장합니다.
- 활동은 관심 있는 주제부터 하면 효율적입니다. **패스포트에 실린 순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활동주제를 선택**해서 활동해도 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신문은 **2015~2016년 발행된 신문**입니다.
- 보조자료로 어린이신문이나 인터넷, 서적 등을 일부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주제를 수행할 때는 개별 또는 모둠 활동 모두 가능하지만 개별 활동이 원칙입니다.
- 활동 내용을 정리할 때 볼펜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필로 쓰실 경우 뚜렷이 드러나게 필기해야 합니다.
- 스크랩한 신문 자료가 클 경우, 자료를 접어 패스포트에 붙여도 됩니다.
- 활동 날짜, 참고한 신문과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반드시 기록합니다.
- **'나의 활동 메모'(6쪽)는 활동한 날짜**를 씁니다.
- 과제를 모두 마치면 뒤쪽에 있는 '비자(visa)' 페이지에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확인'을 받습니다.

자, 이제 신문으로 배우는 재난대비와 생활안전 현장으로 떠나볼까요~

※ 알림
'재난안전교육 패스포트 2016' 활동자료는 교과별 수행평가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 동아리, 진로활동 등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2016□□□□_□.indd 3 2016-06-15 □□ 4:31:44

자기소개



자신의 사진을 직접 붙이거나
직접 캐릭터로 그려 붙이기

이 름 ●

학 교 ●

학년·반 ●

주 소 ●

부모님 연락처 ●

발급일 ●

서명 ●

활동 기간 ●

2016□□□□_□.indd 4 2016-06-15 □□ 4:31:44

‘재난안전교육’
패스포트 활동 수행 전에 알아두세요

신문은 다양한 지면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지면의 명칭은 신문사에 따라 다르지만, 독자가 신문을 더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재난과 안전에 관련된 기사도 그것이 생활에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지면에 소개될 수도 있지요. 신문을 참고하면 활동 과제 수행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종합면
여러 분야의 주요기사

해설면
기사에 관련된 심층 해설

국제면
나라 사이의 관계, 다른 나라의 기사

경제면
경제 활동에 관한 기사

오피니언면
사설, 칼럼, 독자투고

과학면
정보통신, 환경 등 과학기술에 관한 기사

교육면
학교, 교육 정책 등에 관련된 내용

사람들면
유명 인물이나 단체에 관한 소식

지역면
신문이 배포되는 지방의 기사

사회면
사회의 각종 사건 관련 기사

스포츠면
운동경기, 운동선수 등에 관한 기사

문화면
각종 문화, 예술 관련 기사

연예·오락면
연예가 관련 기사

방송면
방송 프로그램 등

종교면
종교 관련 기사

취업·창업면
취업과 창업 관련 기사

출판면
새로 나온 책 소개 등

건강면
질병, 병원, 의료 활동 등 관련 기사

여행·레저면
여행, 레저 활동 정보 등

광고
각종 제품과 서비스의 광고

2016□□□□_□.indd 5 2016-06-15 □□ 4:31:44

나의 활동 메모

순번	날짜	활동 주제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016□□□□_□.indd 6 2016-06-15 □□ 4:31:44

참 고

❶ 활동 순서는 패스포트에 실린 목차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선택해 활동할 수 있습니다.

❷ 활동 주제는 12개 이상을 권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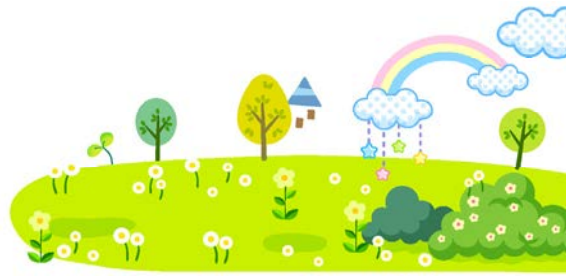
❸ 아래 표에서 '확인'은 주제 수행을 마쳤을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❹ 해당 사항이 없으면 공란으로 비워 둡니다.

한 문장 소감	확인

2016□□□□_□.indd 7 2016-06-15 □□ 4:31:44

1 조심해야 할 나의 등굣길



아침 등굣길은 분주합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오늘 있을 일을 생각하면 즐겁지요. 그렇지만 학교 가는 길은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어요. "아차" 하는 순간~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부딪칠 수 있고, 돌부리 등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어요. 다음의 기사를 읽고 질문에 답해보세요.

3년간 스쿨존 교통사고 피해 어린이 1천535명
지난해 557명으로 25.5%↑… 사망 어린이는 3년간 16명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다친 어린이가 지난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매일 1명 정도 피해를 볼 정도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이 9일 경찰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스쿨존 교통사고로 어린이 1천535명이 다치거나 숨졌다.

피해 어린이는 지난해 557명으로 2013년 444명보다 113명(25.5%)이나 늘었고 이에 앞서 2012년에는 534명을 기록했다.

스쿨존의 위험성이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지적되고 있지만 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피해 정도를 살펴보면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경상이 815명(53.1%)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이 637명(41.5%)이고 5일 미만 치료가 요구되는 '부상신고'는 67명(4.4%)으로 집계됐다.

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어린이는 3년간 16명이다. 2012년과 2013년은 각각 6명이고 작년에도 4명이 사망했다.

또 유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쿨존 교통사고로 피해를 본 어린이는 경기가 290명(18.9%), 서울이 278명(18.1%)이다. 두 지역의 피해 어린이가 전체의 37%를 차지한다.

서울의 스쿨존은 1천694개, 경기의 스쿨존은 3천395개로 두 지역을 합치면 전국 스쿨존의 31.8%다. 스쿨존 개수를 감안하더라도 서울과 경기에서 스쿨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서울, 경기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는 전국 16명 가운데 7명(43.8%)이나 된다.

유기홍 의원은 "정부가 20년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에 1조5천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었

지만 등교일 기준으로 어린이가 매일 한 명씩 교통사고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통학길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망사고를 근절할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노재현 기자 nojae@yna.co.kr

※ 출처: 연합뉴스, 2015년 9월 9일

1 위 기사를 읽어보면 안전해야 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군요. 기사를 읽고 아래 표를 채워봅니다.

질문	신문 기사 내용
3년 간 다치거나 숨진 어린이 수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은 어린이 수	
3년간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는 어린이를 하루로 계산해보면?	

2016□□□□_□.indd 8 2016-06-15 □□ 4:3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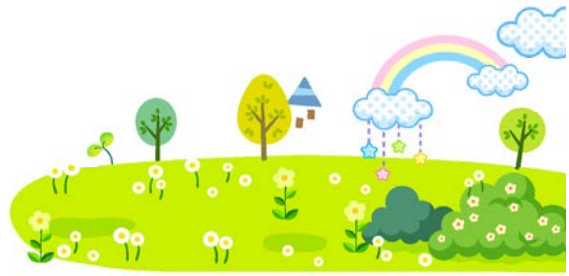
2 여러분이 등교하는 길에 다양한 교통 표지판이 있어요.
아래 교통 표지판의 뜻이 무엇인지 조사해서 적어볼까요?

교통 표지판 종류	교통 표지판의 뜻

3 여러분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경험했거나 날 뻔 한 일이 있었나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적어보세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2016□□□□_□.indd 9 2016-06-15 □□ 4:31:45

2 장난치면 다쳐요!



사람들은 지하철, 마트, 일반 건물 등에 가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흔히 이용합니다. 여러분 눈에는 재미있는 놀이 기구로 보일지 몰라요. 그렇지만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에서 함부로 장난치면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다음의 기사를 읽고 질문에 답해보세요.

손발 끼이고, 낙상…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 빈발

대전에서만 한해 평균 30여건 발생 원인 80% '이용자 과실' 손잡이 잡고 안전선 준수해야

#1. 백화점에서 3살짜리 여자아이가 엄마와 함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중 넘어졌다. 여아는 디딤판(발판) 사이에 손가락이 끼여 검지와 중지 일부가 절단됐다.

#2. 지하철역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은 채 과일상자를 들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아주머니가 넘어졌다. 뒤에 있던 승객 4명도 함께 넘어져 머리와 어깨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추워진 날씨 탓에 실내 활동이 늘면서 승강기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안전장치가 없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사고가 집중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4년) 모두 518건의 승강기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67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중 38명이 숨졌고, 640명은 머리나 어깨, 허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

종류별로는 안전장치가 없고 작동부위가 이용객에게 노출된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가장 많았다. 에스컬레이터 사고는 400건에 달했다. 이어 승객용 엘리베이터(80건), 비상용 엘리베이터(21건), 화물용 엘리베이터(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많은 것은 아이들이 에스컬레이터를 조심할 대상이 아닌 놀이기구처럼 생각하고 성인들도 경각심을 갖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사고 원인 가운데 이용자 과실이 420건으로 81%를 차지했다. 보수결함이나 관리부실인 경우는 각각 41건, 36건에 불과했다.

대전에서도 지난해와 2014년 각각 28건, 34건의 에스컬레이터 사고 신고가 대전소방본부에 접수됐다. 대부분 에스컬레이터를 타다 넘어져 골절과 머리 출혈 등의 부상을 당했다. 일부 승객은 넘어져 아래로 구르기도 했다.

21일 지하철역과 백화점 등을 찾아 에스컬레이터 이용객을 살펴봤다. 손잡이를 잡고 타는 이용객보다 양손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급하게 에스컬레이터를 뛰어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모습도 쉽게 눈에 띄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지면 디딤판 사이에 손이나 발가락이 껴 절단될 위험이 높다. 또 혼자만 다치는 게 아니라 뒤따르는 이용객들과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를 키울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에스컬레이터 사고를 막기 위해선 손잡이를 꼭 잡고 타야 한다. 황색 안전선을 벗어나지 않게 디딤판을 밟아야 하며, 손잡이를 잡기 어려운 아이나 노약자는 보호자의 손을 잡는다. 옷자락이 틈새에 끼이지 않도록 유의하는 게 좋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 출처: 중도일보, 2016년 1월 22일 7면

1 위 신문기사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일어난 사고를 다룬 글입니다. 기사를 읽고 아래 표를 채워봅니다.

질문	신문 기사 내용
누가 조사했나요?	
5년간 몇 명이 숨졌고, 몇 명이 다쳤나요?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고를 막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2016□□□□_□.indd 10 2016-06-15 □□ 4:3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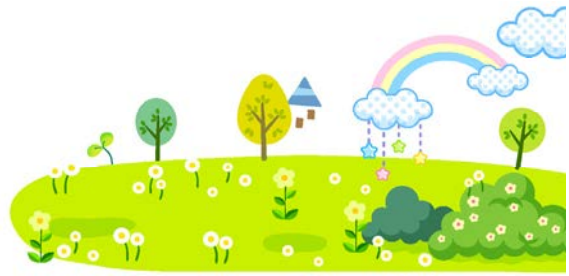
2 다음은 여러분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자주 보는 경고 표지판입니다.
이 표지판의 뜻이 무엇인지 적어볼까요?

표지판 종류	표지판의 뜻

3 만일 엘리베이터가 멈추거나 고장이 났다면 안전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적어볼까요?

2016□□□□_□.indd 11 2016-06-15 □□ 4:31:46

3 좌우를 살펴요



혹시 여러분은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는 순간 앞으로 뛰어나온 적이 있나요? 또한 골목에서 스마트폰만 보며 걸어 나올 때가 있나요?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항상 좌우를 살피며 걸어야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요. 다음의 기사를 읽고 질문에 답해보세요.

어린이 안전 지키는 횡단보도 '옐로카펫' 서울 100곳으로 확대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설치하는 '옐로카펫'이 서울시내 100곳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옐로카펫 설치확대를 위해 30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국제아동인권센터와 민관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옐로카펫은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안전하게 대기하고 운전자는 조심해 운전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쪽 벽과 바닥에 노란색 노면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서울시내 18곳에 설치돼 있지만 내년 100곳, 2018년 3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2월까지 각 자치구별로 설치 신청을 받고 지점을 선정, 3월부터 학생·학부모가 직접 참여해 설치한다.

옐로카펫 설치는 내구성이 좋은 알루미늄 스티커가 사용되고, 상단에는 낮 동안 햇빛을 모았다가 밤에 사람이 다가오면 자동으로 켜지는 태양광 램프가 부착된다.

시는 이를 위해 기존 설치된 지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내년 1월 안에 '옐로카펫 설치기준안'을 마련하고, 3월에는 시범설치 지역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만든다. 또 시내 초등학교와 운전면허시험, 교육장에서 옐로카펫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신용목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58%)이 초등학교 반경 300m 안에서 일어났다"며 "어린이 이동이 많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설치하고 계속 민간과 협력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를 돕는 옐로카펫 도안. 서울시 제공

※ 출처: 한국일보, 2015년 12월 31일 26면

1 위 신문기사는 어린이 안전에 대해 소개한 글입니다. 육하원칙에 맞춰 아래 표를 채워봅니다.

질문	신문 기사 내용
누가	
어디서	
어떻게	
언제	
무엇을	
왜	

2016□□□□_□.indd 12 2016-06-15 □□ 4:31:48

2 아래는 여러분이 길을 걷다가 볼 수 있는 교통 표지판입니다. 교통 표지판의 뜻이 무엇인지 조사해서 적어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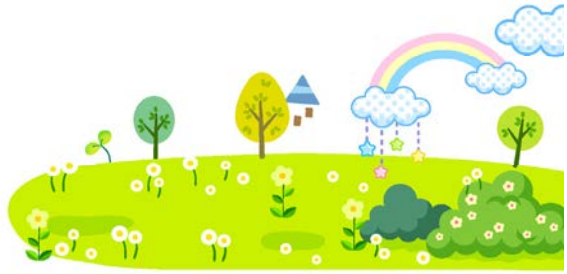
교통 표지판 종류	교통 표지판의 뜻

3 횡단보도를 건널 때와 골목에서 걸어 나올 때 좌우를 살피고 걸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16□□□□_□.indd 13 2016-06-15 □□ 4:31:48

4

앗, 인도로 달리는 오토바이!



여러분은 길을 걷다가 오토바이와 마주친 경우가 있었나요? 이런 경험을 해봤다면 정말 아찔했을 것입니다. 평소 자주 다니는 거리에서도 항상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의 기사를 읽고 질문에 답해보세요.

'인도위 무법자' 오토바이 3년간 전국서 955명 다쳐

신호등 피해 행인 사이로 쌩쌩~
보행자 위협… 안전사고 노출
포항, 최근 단속 고작 5건
범칙금 인상 등 대책 시급

포항 인도 위 곳곳에서 운행하는 오토바이로 인해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14일 오후 포항중앙상가 일대.

인도 위 곳곳에서 운행하는 오토바이들이 수 차례 눈에 띄었다.

이 오토바이들은 모두 행인들 사이를 요리저리 피해가며 운행했다.

각종 음식점 배달 오토바이, 다방 오토바이, 일수 오토바이 등 인도 위를 운행하는 오토바이의 종류도 다양했다. 한 오토바이는 인도 위를 운행하다 도로로 나왔다가 다시 인도 위로 올라가 운행하기도 했다.

이날 저녁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인도에서는 행인 2명이 옆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오토바이 때문에 깜짝 놀라는 모습도 보였다.

이 같은 오토바이들은 죽도시장,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등 포항시내 전역 인도에서 쉽게 눈에 띄고 있다.

많은 오토바이들이 인도 주행을 일삼는 이유는 신호등에 걸리지 않는 등 빨리 목적지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도에서 운행하는 많은 오토바이로 인해 행인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

황모(28·여)씨는 "포항 어디에서든 인도 주행을 일삼는 오토바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며 "인도에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지나가 놀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인도 위 오토바이 운행은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단속은 미미한 상황이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북 전체에서 지난해와 올해 현재까지 인도 위에서 오토바이를 주행하다 적발된 건수는 총 23건에 불과하다. 이 중 포항에서 단속된 것은 총 5건 정도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오토바이 인

14일 오후 한 오토바이가 포항 북부시장 앞 인도 위를 주행하고 있다.

도주행으로 오토바이와 보행자간 충돌 및 접촉사고는 총 876건이 발생, 12명이 사망하고 955명이 부상당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상태다.

특히 가벼운 접촉사고 등으로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보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사고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토바이 인도주행과 관련,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 인도주행이 위험한 만큼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호기자 lsh@hidomin.com

※ 출처: 경북도민일보, 2015년 1월 15일 4면

1 **위 신문 기사는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서 마구 운행하는 오토바이에 대한 글입니다. 기사를 읽고 아래 표를 채워봅니다.**

질문	신문 기사 내용
최근 3년간 인도에서 오토바이로 인한 사고 건수는 얼마인가요?	
인도 위를 운행하는 오토바이 종류는 무엇인가요?	
오토바이가 인도로 다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16□□□□_□.indd 14 2016-06-15 □□ 4:3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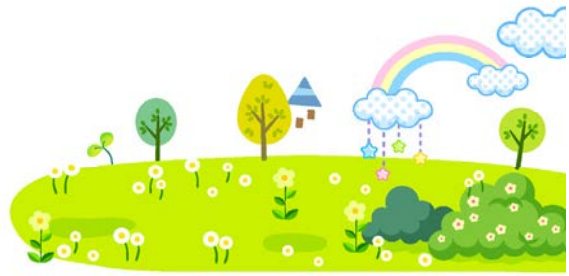
2 아래와 같은 상황일 때 '나의 행동'을 생각해 적어볼까요.

상황	나의 행동

3 여러분이 경찰이라고 생각하고 오토바이가 인도로 다니지 못하게 할 아이디어를 제시해보세요.

2016□□□□_□.indd 15 2016-06-15 □□ 4:31:49

5 즐겁게 놀아요



최근 자전거 도로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즐겨 타고 있어요. 그렇지만 골목길이나 인도 등 자전거를 타기에는 위험한 곳이 많지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리 함께 안전한 자전거 타기에 대해 생각해볼까요?

아래 기사는 공공자전거를 늘려 운영한다는 서울시 정책에 대한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를 읽고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봅시다.

자전거 2000→5600대, 대여소 150→450곳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더 편리해진다

5개 거점지역 등 도로 47km 확충
노면표시·안내표지 등 안전시설도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따릉이'(사진)가 7월부터 2배 이상 확대되고 대여소가 500m 간격으로 촘촘해진다. 또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자전거도로가 47.7㎞ 확충된다.

서울시는 4대문안, 신촌, 상암, 여의도, 성수 등 5개 거점지역과 동대문, 용산 등 인접지역에 따릉이를 3600대 추가로 설치, 생활권내에서 쉽고 편리한 공공자전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따릉이는 현재 2000대에서 올 하반기 5600대로 늘어난다.

대여소는 4월말까지 300곳을 추가해 현재 150곳에서 450곳으로 확충된다. 대여소는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정류장, 주거단지, 학교, 업무·상가시설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따릉이를 2시간 이용하면 현재는 3000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이번에 도입되는 '2시간 이용요금제'를 선택하면 2000원만 내도 된다. 또 따릉이 보험은 자전거 하자와 상관없는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입원비 및 후유장애, 사망시에만 보험혜택을 제공했지만 보장범위를 치료비까지로 확대했다.

시는 기존 5개 권역에서 양천구, 영등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올해 양화로, 마포로 등에 자전거도로 10.9㎞를 추가 설치하고 용산, 동대문 등 신규 확대지역에는 36.8㎞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 기존 자전거 우선도로에 노면표시 및 안내표지 등 총 1092개의 안전시설을 늘리고 교차로구간 횡단도 설치, 이면도로 안전시설 정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정동, 청계천, 인사동, 북촌, 서촌 등 5개 지역을 중심으로 따릉이를 타고 관광명소를 돌아볼 수 있도록 '따릉이 관광코스'를 시범적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따릉이는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운영된 이후 올해 2월말까지 총 3만8000명이 회원으로 가입했고 14만9000건이 대여됐다.

1년 정기권 이용자에 한해 따릉이와 지하철·버스간 30분 이내 환승할 경우 1회 100포인트(원)가 적립되며 최대 하루 2회, 연간 1만5000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 출처: 국민일보, 2016년 3월 17일 13면

1 위의 기사는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있네요. 여러분이 얻은 정보를 (　　)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　　)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정보를 두 가지 이상 찾아 적고 왜 이 정보를 골랐는지 적어보세요.

정보를 줄 사람 : 어머니
정보 : 따릉이 이용 1년 정기권을 사용하면 대중교통 환승시 할인을 받을 수 있대요.
정보를 고른 이유 : 어머니께서 자전거를 이용해 시장 보기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유용할 것 같아서

2016□□□□_□.indd 16 2016-06-15 □□ 4:31:50

정보를 줄 사람

정보

정보를 고른 이유

2 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따릉이 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여러분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복장의 그림을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자전거를 탈 때 주의할 점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토의하고 그 중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적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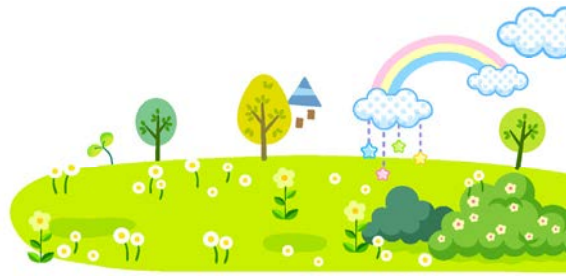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는 여러분의 복장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기 위한 방법

※ 토의 방법

①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서로 다른 색깔의 포스트잇을 각자 세 장씩 나누어 가집니다.
②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방법을 포스트잇에 각각 한 개씩 적습니다.
③ 각자 적은 내용을 돌아가며 읽으면서 큰 도화지에 포스트잇을 붙입니다.
④ 비슷한 내용끼리 정리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세 가지 고릅니다.

2016□□□□_□.indd 17 2016-06-15 □□ 4:3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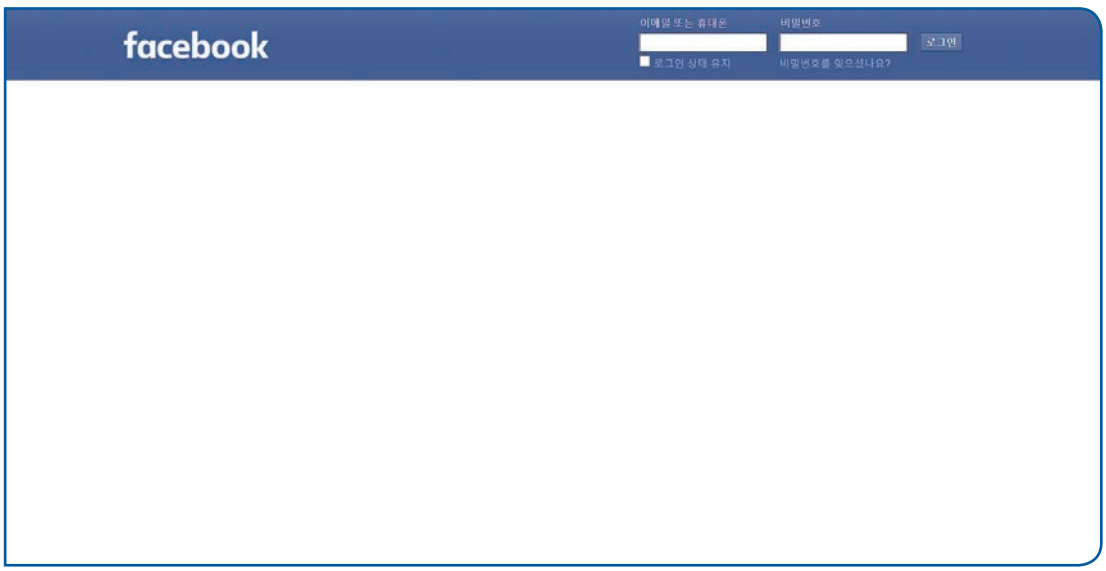
6 안전띠는 생명의 띠



여러분은 차를 탈 때 안전띠를 매나요? 교통 전문가들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안전띠를 매기만 해도 다칠 위험이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특히 큰 교통사고의 경우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사망률이 약 4배나 높아진다니 '안전띠는 생명띠'라는 말이 과언이 아니네요.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작년에는 교육부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전 좌석 SNS 안전띠 릴레이'를 진행하기도 했답니다. 여러분은 안전띠 매기를 잘 하고 있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내용을 SNS에 올리고 싶나요?

1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본 사람들이 꼭 안전띠를 매야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짧은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혹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https://www.facebook.com/lovesafetybelt



2 **여러분의 글이 SNS에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위 내용에 대한 의견을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 3명에게 댓글을 요청해보세요**

댓글 1

댓글 2

댓글 3

2016□□□□_□.indd 18 2016-06-15 □□ 4:31:51

활동날짜	년	월	일	요일	
참고신문	년	월	일	신문(일보)	면
참고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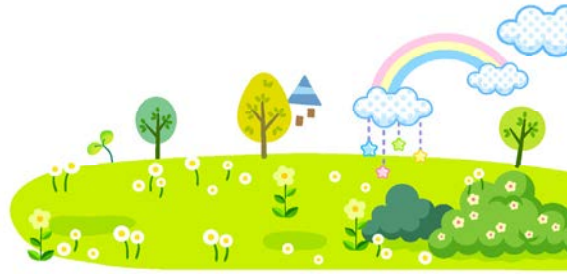
3 **최근 신문에서 안전띠 관련 기사를 찾아 읽어보세요. 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를 스크랩한 다음, 그 내용의 핵심을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으로 나타내보세요.**

신문 스크랩하는 곳

※ **인포그래픽이란** 인포메이션 그래픽(information graphics)의 준말입니다. 인포그래픽은 그래픽(시각적인 효과)을 통해 정보를 빨리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랍니다. 인포그래픽의 기본 요소는 비주얼(visual), 내용(content), 지식(knowledge) 등의 세 가지입니다.

2016□□□□_□.indd 19 2016-06-15 □□ 4:31:51

7
SNS 폭력, 이제 그만



2015년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사이버 폭력은 전년도보다 18.9%나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공간 속에서 SNS를 이용한 사이버 폭력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같이 고민해볼까요?

아래 기사는 SNS를 사용한 사이버폭력의 실태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토대로 사이버 폭력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생각해봅시다.

피해자 10명중 3명 "아무 대처 안했어요"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 보니

대처 안한 학생 대부분이 "별일 아니라 생각해서…"

여러명이 함께 괴롭혀도 피해사실 안드러나는 구조

사이버불링 목격 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복수응답)

"나서면 자신이 왕따가 될 수 있고, 애들과 사이가 틀어질 수 있어서 (사이버불링을) 그냥 방관하고 무시합니다."(중학생 ㄴ군)

"제가 피해자라면 일단 친한 무리들이 없으니까 기가 죽을 것 같아요. 아무런 조치를 못 취하다가 시간이 흐르면 그제야 신고를 하지 않을까요."(중학생 ㄷ양)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사이버불링'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집단 따돌림 양태는 진화하고 있지만, 정작 피해를 당한 청소년들은 적절한 대처를 하기보다는 대부분 수수방관하면서 피해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전국의 학생 3000명(초등 4년~고교 3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인터넷상의 언어폭력·명예훼손·따돌림 등 최근 1년 사이 사이버불링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19%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학생 10명 중 2명에 이르는 수치다.

하지만 사이버불링 이후 적절한 대처에 나선 학생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 10명 중 3명(30.5%)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상대방을 차단하거나 내 아이디를 삭제'하는 수동적 방어를 한 경우가 37.7%로 가장 많았다. '상담센터나 경찰에 신고했다'는 비율은 1.2%에 그쳤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들의 86.5%는 그 이유를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라고 답했다.

사이버불링을 목격한 경우에도 '별일이 아니라 생각'(30.3%)하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23.7%) 아무런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이정훈 한국인터넷진흥원 선임연구원은 "사이버상의 학교폭력은 주변에 잘 드러나지 않아, 여러 명이 함께 괴롭힘을 가해도 피해 사실을 피해자밖에 모르는 '고립형 피해'로 나타난다"며 "피해자 역시 다시 가해자가 되는 '보복 충동'이 높게 나타나 사이버상의 폭력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김미향 기자

어른들은 모르는 아이들의 사이버불링 용어

반톡	담임 교사를 제외한 반 학생 전체가 참여하는 카카오톡 그룹채팅방. 숙제 등 각종 공지사항을 공유하지만 교사가 없는 사이 특정 친구의 '굴욕 사진'을 올리거나 특정 친구를 배제하고 이뤄지는 '뒷담화'가 발생.
저격글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에 대해 실명을 거론하지 않되 누구나 대상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 에스엔에스에 비방글을 쓰는 것.
카톡감옥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카카오톡 그룹채팅에 초대받은 뒤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넷상일진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사이버상에서만 허세를 부리고 화려한 인간관계를 자랑하는 친구.
데이터 셔틀	스마트폰 사용에 필요한 데이터를 친구의 강요에 의해 심부름해주는 것. 친구의 데이터나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내 것처럼 쓰는 행동.

※ 출처: 한겨레, 2015년 11월 10일 10면

1 위 기사를 읽고 사실은 파란색, 의견은 노란색,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빨간색 색연필로 밑줄을 그어주세요.

2016□□□□_□.indd 20 2016-06-15 □□ 4:31:53

2 위 내용을 보면 청소년 10명 중 2명은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고 하니 참 놀라운 일이네요. 사이버 폭력을 당한 사람에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경험한 친구 한 명을 골라 인터뷰하고 이 인터뷰를 통해 여러분이 알게 된 내용을 아래에 정리해 보세요.

※ 인터뷰 하는 방법

- 먼저 인터뷰에 응할 친구를 찾습니다.
- 인터뷰를 통해 얻은 정보는 학습용으로만 쓰고, 친구 이름이나 친구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밀을 지킨다는 약속을 합니다.
-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미리 생각해 둡니다.
-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한 결과를 친구와 공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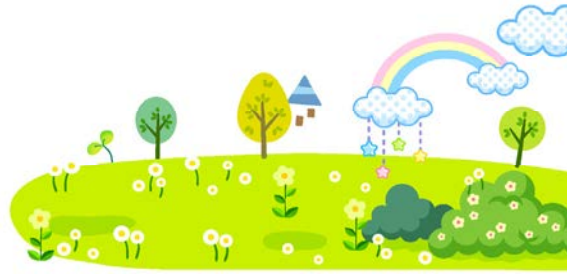
3 의사소통이 중요한 현대 사회에서 SNS는 아주 유용한 소통의 수단이지만, 잘못 쓰면 위와 같은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SNS를 잘 사용하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조사해보고 앞으로 더 잘 사용하기 위해 노력할 점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주로 사용하는 SNS는 무엇인가요?

SNS를 잘 사용한 사례	SNS를 잘못 사용한 사례	SNS를 앞으로 더 잘 사용하기 위해 노력할 점

2016□□□□_□.indd 21 2016-06-15 □□ 4:31:53

8 친구에게 욕설은 나빠요



영국 최고 명문이라고 하는 옥스퍼드대학이나 캠브리지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세계 어느 곳에서 만나도 한 두 번의 대화를 통해 서로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것을 알아낸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까요? 그것은 그 대학 출신들만이 쓰는 언어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옛말에도 '말은 그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며 바른 언어사용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현재 우리의 언어생활은 어떤가요? 함께 생각해봅시다.

선생님들이 어렸을 때에는 일상생활에서 욕을 하는 것은 매우 큰일로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청소년들은 별의미 없이 유행어를 쓰는 것처럼 욕설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지, 욕설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인지, 여러분 주위의 친구 5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정리해 보세요.

※ 설문조사 하는 방법

- 먼저 설문조사의 의의를 짧게 설명하고 어떻게 사용할지 약속합니다.
- 여러분이 알고 싶은 내용으로 설문 문항을 만듭니다. 문항은 상대방이 답하기 쉽게 합니다.
- 설문조사를 하고 싶은 사람(친구)을 찾아가 의의를 말하고 응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 설문결과를 종합해 봅니다.
- 종합한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결론을 얻습니다.

설 문 지

이 설문조사는 친구들이 욕설을 사용하는 이유와 욕설을 들었을 때의 느낌을 알아본 후 어떤 언어생활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답변한 내용은 이 조사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16년 ( )월 ( )일 이름 ( )

아래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여러분은 욕설을 사용해본 적이 있나요? ① 있다. ②없다

2. 여러분이 욕설을 할 때 상대방의 표정은 어땠나요? ① 기분 좋아했다. ②언짢아했다. ③별 표정이 없었다.

3. 여러분은 주로 언제 욕설을 사용하나요?

4.

5.

6.

2016□□□□_□.indd 22 2016-06-15 □□ 4:31:53

활동날짜 년 월 일 요일

참고신문 년 월 일 신문(일보) 면

참고사이트

1 위 설문조사 문항을 완성하세요. 문항을 더 만들고 싶으면 추가해 완성해도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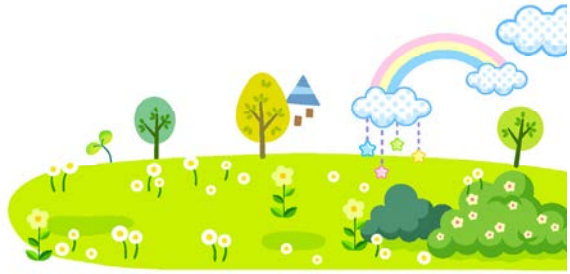
2 설문조사 결과로 알게 된 내용을 각 문항별로 정리해보세요.

문항	얻은 결과
1	욕설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친구가 ( )명, 없는 친구는 ( )명으로 욕설을 사용해본 친구가 전체의 ( )%이다.
2	
3	
4	
5	
6	

3 설문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학교신문에 기고하는 글을 다른 종이에 써서 아래에 붙여주세요. 제목은 '바른 언어사용'으로 하면 좋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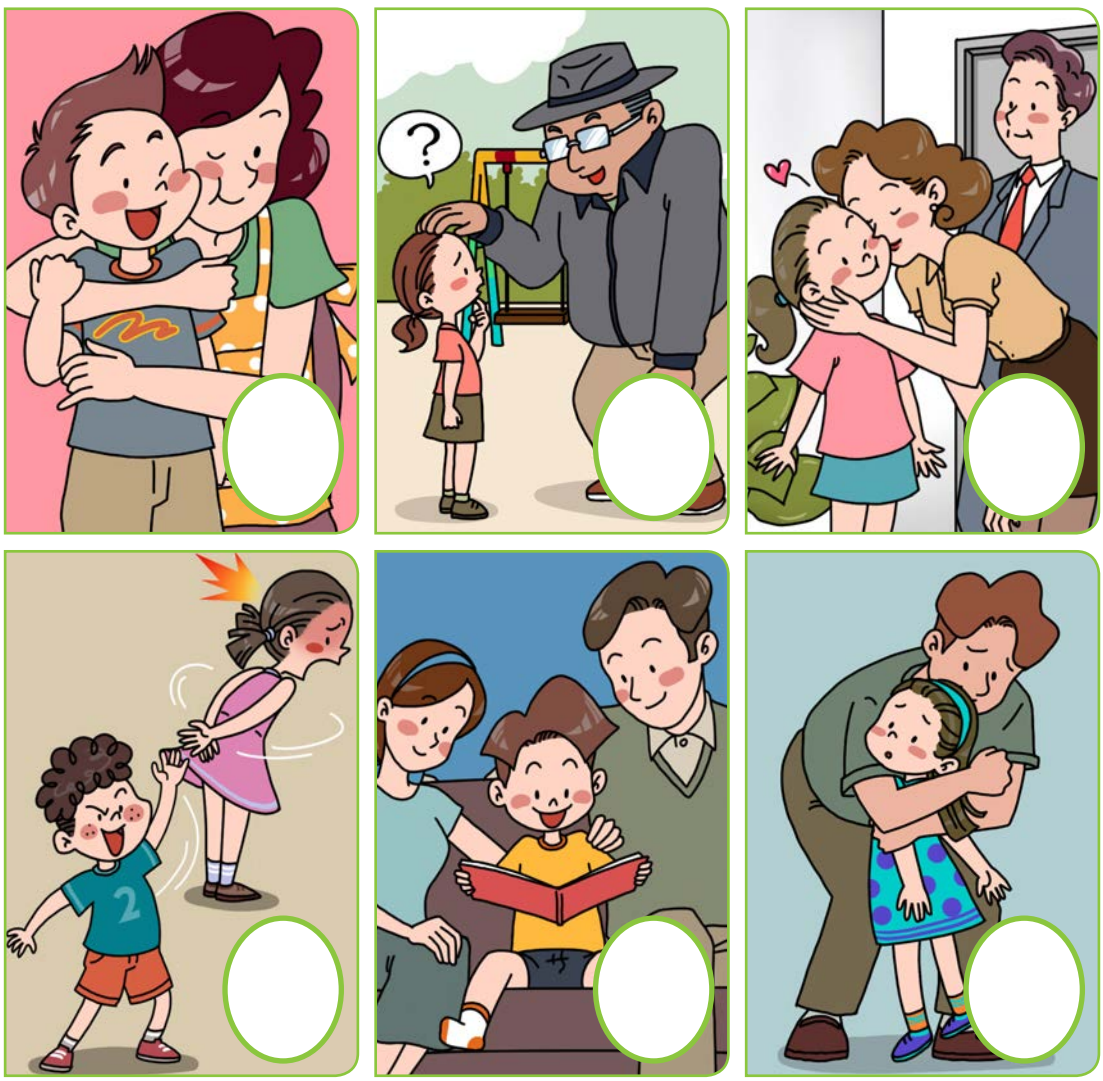
2016□□□□_□.indd 23 2016-06-15 □□ 4:31:53

9 내 몸을 만지면 안돼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밖에 없는 매우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이렇게 특별한 존재인 자신을 사랑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소중한 내몸! 어떻게 보호하고 아껴야 할까요?

1 여러분의 몸은 매우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의 몸을 만지거나 사랑을 표현할 때 어떤 느낌을 받았나요? 아래 내용 중 기분이 좋았을 때는 스마일 얼굴을, 기분이 나빴을 때는 찡그린 얼굴을 그려주세요.



2016□□□□_□.indd 24 2016-06-15 □□ 4:31:54

활동날짜 년 월 일 요일

참고신문 년 월 일 신문(일보)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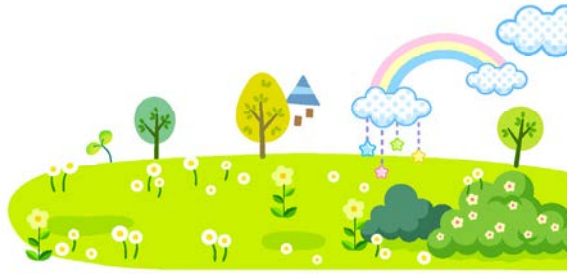
참고사이트

2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웃는 얼굴을, 어떤 경우에 찡그린 얼굴을 그렸나요?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아래에 써 보세요.

3 여러분은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고 있지요? 유치원에 다니는 동생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낯선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4컷 만화로 그려서 설명해주세요.

2016□□□□_□.indd 25 2016-06-15 □□ 4:3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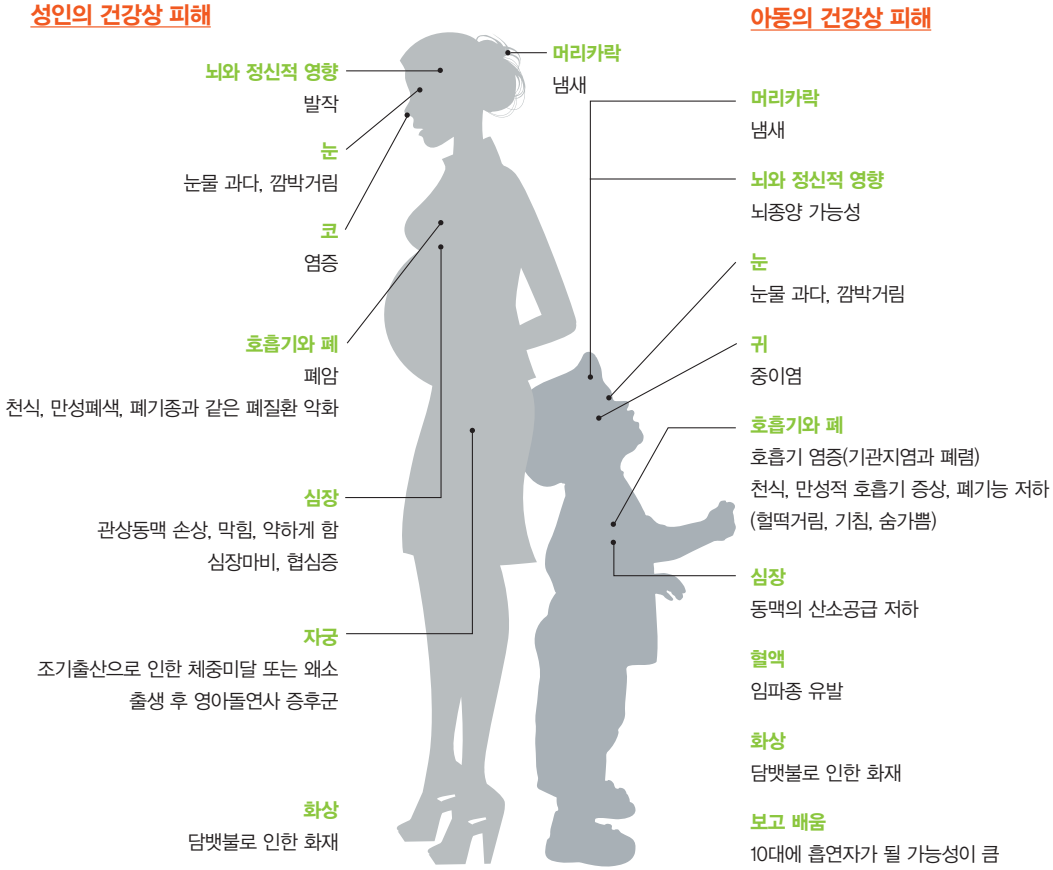
10 내 몸을 병들게 하는 담배



"밤 9시 이후에 피아노 연주, 트럼펫 연주, 성악연습 하지 마세요. 밤 9시 이후에 벽에 못 박지 마세요. 아파트 복도나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 다른 주민에게 피해를 줍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런 안내문을 본 적이 있나요? '밤에 악기 연주하거나 벽에 못 박으면 큰 소리가 나서 이웃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담배까지 피우지 말라고 했을까요? 담배가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줄까요?

1 담배 연기는 직접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줍니다. 또한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서 담배 연기를 맡기만 해도(간접 흡연) 우리 몸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다음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항목 2~3개를 선택해 동그라미(○) 표시하고 표에 써보세요.

간접흡연의 영향



2016□□□□_□.indd 26 2016-06-15 □□ 4:31:54

활동날짜	년	월	일	요일	
참고신문	년	월	일	신문(일보)	면
참고사이트					

그림에서 찾은 정보

우리 몸의 이 부분에	이런 영향을 줍니다

2 세계 여러 나라는 담뱃갑에 경고그림이나 경고문을 표기해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을 알리고 있습니다. 담뱃갑 경고그림 또는 경고문에 관련된 기사를 아래에 붙이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쓰세요. 인터넷에서 '담뱃갑 경고그림'을 검색해 기사를 수집해도 좋습니다.

기사 붙이는 곳

2016□□□□_□.indd 27 2016-06-15 □□ 4:31:54

기사제목	
기사 읽고 알게 된 정보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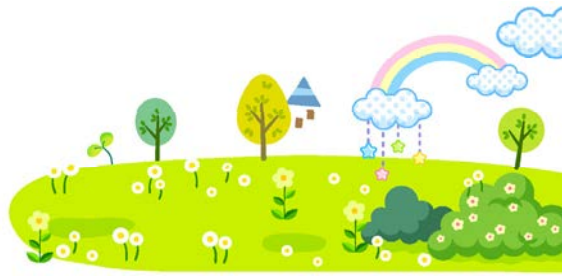
우리 아파트 놀이터 옆 게시판에 금연 포스터를 붙이려고 합니다. 기사 또는 그림에서 찾아낸 정보를 활용하여 포스터를 꾸며 보세요. 포스터에 〈보기〉의 낱말 중 2개 이상을 넣으세요.

〈보기 : 간접흡연, 피해, 질병, 어린이 건강〉

2016□□□□_□.indd 28 2016-06-15 □□ 4:31:55

11

119 아저씨! 불이 났어요!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8월 15일은 광복절입니다. 11월 9일은 무슨 날일까요? 바로 '소방의 날'입니다. 119 신고 전화번호를 의미하는 기념일이죠.

1 **불을 사용할 때 한순간 방심하면 화재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사 내용에 알맞은 그림 1개와 설명 1개를 각각 찾아 줄로 연결하세요.**

소방안전실천 24시

아파트 발코니 경량칸막이는 또 하나의 생명문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비상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가족 모두 극적으로 탈출해 생명을 지켜낸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재는 지난 19일 새벽 5시경,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주방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출입문과 아파트 내부로 번졌고, 놀라서 잠을 깬 식구들은 아파트 밖으로 탈출을 시도했지만 뜨거운 열기와 연기 때문에 불가능했다.

거주자 A 씨는 급한 대로 아내와 3살 난 딸을 데리고 발코니로 피했지만 7층 높이라 바깥으로 뛰어 내릴 수도 없었고, 그 사이 유독가스가 점점 번져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A 씨는 그때 번뜩 발코니 벽을 부수면 이웃집으로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고, 석고보드로 만든 칸막이 벽을 뚫고 옆집으로 들어가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지켜냈다.

만약 그 사실을 몰랐거나 칸막이 앞에 설치된 장애물이 있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공동주택 주거자의 피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이러한 방법은 지난 2005년 12월 건축 관련법령이 개정되면서 시작됐다. 즉,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거나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로 설치해 유사시 칸막이를 부수고 피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전시 소방본부 및 각 소방서에서는 2014년 1월, 대피공간이나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아파트 19만여 세대를 파악해 세대주 및 아파트 관계자를 대상으로 계도하는 한편 비상시 탈출방법과 그 앞에 물건을 쌓아두지 말 것을 알리는 홍보용 스티커를 부착했다. 하지만 아파트 발코니에 경량칸막이가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알고 있는 경우에도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처럼 사용해 비상탈출을 가로막고 있어 법의 취지와 생명존중 정신을 무색케 한다. 이제 '생명 문'이 될 수 있는 비상통로를 본인 스스로 차단해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전시소방본부>

※ 출처: 충청투데이, 2016년 2월 25일 20면

※ 화재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집에 불이나면 초기에 소화기로 불을 꺼야 하고, 초기에 불을 끄지 못했다면 집밖으로 빨리 피해야합니다. 만약 아파트 현관 쪽에 불이 났다면 불과 연기를 피해 발코니로 가서 경량칸막이를 부수고 이웃집으로 대피해야합니다.

2016□□□□_□.indd 29 2016-06-15 □□ 4:31:56

계단을 이용해 피난층(옥상)이나 1층으로 신속히 피한다.

집에 불이나면 신속하게 집밖으로 피한다. 이 때 불이 번지지 않도록 현관문을 꼭 닫는다.

집 밖으로 피할 수 없으면 발코니의 경량칸막이를 부수고 이웃집으로 대피한다.

연기를 마시면 질식하기 때문에 물에 적신 수건으로 입을 막고 대피한다.

2016□□□□_□.indd 30 2016-06-15 □□ 4:3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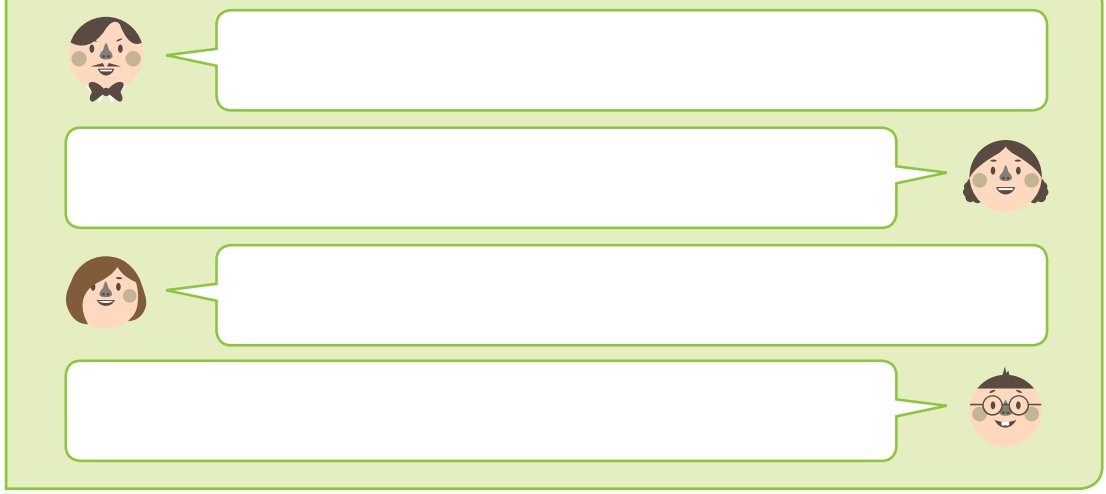
2 소방차가 "삐뽀삐뽀" 소리 내며 출동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화재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다음 중 화재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네 가지를 찾아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가스레인지에 라면을 끓이다가 깜빡 잊고 불을 끄지 않았다.	
유리컵을 깨뜨렸다.	
라이터로 불장난을 했다.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켜놓고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초가 떨어졌다	
콘센트에 여러개의 전기기구를 꽂아 사용한다.	

3 우리 집에 소화기가 있나요? 혹시 우리 집 발코니의 경량칸막이 앞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았나요? 우리 집의 소화기와 발코니 상태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항목에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우리 집에 소화기가	있다 ( )	없다 ( )
(만약 우리 집이 아파트라면)	있다 ( )	없다 ( )
우리 집 발코니 경량칸막이 앞에 물건을	쌓아두었다( )	쌓아두지 않았다 ( )

화재를 어떻게 예방해야하는지, 화재가 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우리 집 상태는 어떤지 등을 잘 알았나요? 그럼,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족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꼭 알리고 싶은 것을 카톡방에 올려보세요. (가령 소화기가 없다면 소화기를 구입하자는 댓글을 써야겠죠~)



2016□□□□_□.indd 31 2016-06-15 □□ 4:31:56

12 시간 잡아먹는 스마트폰 벗어나요

스마트폰은 편리한 전자 도구입니다. 기사를 읽고, 자료도 찾고, 동영상 강의도 듣고, 쇼핑도 하고, 친구들과 문자도 주고받고, 음악도 들을 수 있죠.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스마트폰, 어떻게 사용해야 바람직할까요?

혹시 당신도 눈뜬 장님 '스몸비'?

〈스마트폰+좀비〉

NOW

지난 22일 오전 8시쯤 서울 지하철 강남역 사거리 횡단보도. 보행 신호를 기다리던 시민 40여명 중 21명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영하권으로 떨어진 날씨였지만 시민들은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스마트폰으로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어폰을 꽂고 동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는 사람도 여럿 있었다.

게임을 하고 있던 정모(34·강사)씨는 보행 신호로 바뀐 줄 모르고 있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도로로 뛰어들었다. 정씨가 횡단보도를 반도 건너기 전에 신호는 빨간불로 바뀌었다. 정씨는 "인천 부평 집에서 강남으로 출근하는 한 시간 동안 항상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했다.

스마트폰에 빠져 주변을 살피지 않는 보행자가 늘면서 아찔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산하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지난 수년간 자사(自社)가 처리한 교통사고를 분석해보니 스마트폰이 원인이 된 교통사고는 2009년 437건에서 2014년 1111건으로 5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학생 백모(22)씨는 지난달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골목에서 지나가는 차에 발이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스마트폰이 화근이었다. 백씨는 "여자 친구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느라 차가 오는 걸 못 봤다"고 했다. 지난 2011년에는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 안에서 한 여학생이 교내 셔틀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목격자들은 "여학생이 휴대전화를 보고 있어 버스가 오는 것을 미처 못 본 것 같다"고 진술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스마트폰을 보며 걷던 여성이 강에 빠져 목숨을 잃은 사건도 있었다.

실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걷는 보행자는 그러지 않는 경우보다 주변 차량

보행자가 차량 소리를 인지하는 거리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을 때 11.9m
문자메시지 송·수신, 게임할 때 7.7m
이어폰 꽂고 음악 들을 때 4.7m

자료: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주변 차량 인지 힘들어지고 시야도 120→20도로 좁아져

일본, 보행중 차단 기능 설치
美뉴저지주, 벌금 10만원 부과
中엔 스마트폰 사용자 전용거리

을 인지하는 거리가 절반 정도까지 짧아진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본지 의뢰를 받아 실험한 결과 보행자는 일반적으로 차량이 11.9m 거리에 접근하면 차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스마트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길을 걸을 때는 차량이 7.7m 앞까지 다가왔을 때에야 차 소리를 알아챘다.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을 경우에는 4.7m로 그 거리가 더 짧아졌다. 건국대학교병원 신현진 교수는 "평소 사람은 120도 범위를 볼 수 있는데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으면 시야(視野)가 20도 이내로 줄어든다"고 했다.

보행 중 스마트폰 이용에 따른 위험이 이처럼 큰데도 보행자 10명 중 4명(40.7%)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인도를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과 현대해상이 지난 2013년 실제 도로와 인도에서 조사한 결과다. 이 조사에서 10명 중 2.4명은 횡단보도에서도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건넜다.

스마트폰에 시선을 뺏긴 보행자가 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 떠오르면서 해외에선 이를 막으려는 대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스마트폰에 빠져 주변의 위험 상황을 의식하지 않고 걷는 사람을 좀비(zombie·살아 있는 시체)에 빗대 '스몸비(smombie)'라고 부른다.

일본 통신업체 NTT도코모는 지난

2013년 출시한 휴대전화에 '보행 중 차단' 기능을 설치했다. 휴대전화가 사용자 이동을 인지하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라는 경고 문구가 뜨면서 바로 작동이 중단된다. 미국 뉴저지주에서는 도로를 건너면서 문자를 보낼 경우 벌금 85달러(약 10만원)를 물리고 있다. 중국 충칭(重慶)과 벨기에 앤트워프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자만 다니는 전용 길도 생겼다.

이슬비·양승주·유지한 기자

※ 출처: 조선일보, 2016년 2월 26일 10면

1 길을 걸어갈 때 스마트폰을 보는 행동은 아주 위험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위험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기사에서 찾아 정리해보세요.

나라 이름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위험 이렇게 대처해요
미국	
중국	
일본	

2016□□□□_□.indd 32 2016-06-15 □□ 4:31:58

2 다음은 스마트폰 사용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한 것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의 장점을 찾아 ☺, 스마트폰 사용의 단점을 찾아 ☹를 그려보세요.

설명	☺☹ 표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을 수 있다	
스마트폰을 많이 하면 눈이 쉽게 피로하다	
길찾기 앱으로 모르는 곳도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다.	
친구들과 숙제나 준비물에 관련된 정보를 편하게 주고받는다.	
고개 숙이고 게임을 하느라 거북목이 된다.	
길을 걸으며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픽토그램을 본 적이 있나요?

는 화장실을 뜻하는 픽토그램입니다. 는 남자화장실, 는 여자화장실, 는 금연을 뜻하죠.

3 우리나라 서울의 '강남'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 중 하나입니다. 여행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길을 걸으며 스마트폰을 하지 마세요'란 뜻의 픽토그램을 그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하늘색 빈칸에 픽토그램을 그리고 분홍색 빈칸에 의미를 설명해보세요.

픽토그램이란? 픽토(picto)와 전보를 뜻하는 텔레그램(telegram)의 합성어로, 사물과 시설 그리고 행동 등을 상징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타낸 시각디자인입니다.

2016□□□□_□.indd 33 2016-06-15 □□ 4:31:58

13 건물이 흔들, 어디로 피해야할까요?

혹시 TV에서 물이 불어난 강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구출하는 장면을 보았나요? 신문에는 홍수, 태풍으로 인한 피해기사가 자주 보도됩니다. 특히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할까요? 대처방법을 알고 있으면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답니다.

1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건을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찾아 읽고 빈칸을 채우세요.

사건	기사제목	기사 내용 요약 및 출처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발생했나요?)
홍수		
태풍		
낙뢰(번개)		
지진		

2016□□□□_□.indd 34 2016-06-15 □□ 4:31:58

활동날짜 년 월 일 요일

참고신문 년 월 일 신문(일보) 면

참고사이트

2 다음과 같은 위험에 빠진 사람에게 어떤 조언을 하고 싶은가요? 〈보기〉의 조언을 참고해 빈칸에 나의 조언을 쓰세요. 조언이 생각나지 않으면 〈보기〉의 내용을 참고해서 써도 됩니다.

사건	이런 위험에 빠졌어요	이렇게 조언해요
홍수	물에 잠겨 있는 버스정류장과 전봇대 옆에 어린이가 서 있어요	
태풍	바람에 간판이 흔들리고 나뭇가지가 부러져 날아다니는 곳에 어린이가 있어요.	
낙뢰(번개)	번개 칠 때 나무 밑에서 어린이가 우산을 쓰고 있어요.	
지진	집이 흔들리고 거실장의 물건이 떨어지는 곳에 어린이가 있어요.	

〈보기〉

① 신속히 집 밖으로 나가. 나가기 어렵다면 식탁이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 머리는 방석을 뒤집어 써서 보호하면 더 좋아.

② 위험해. 전봇대에서 전기가 흘러나와 감전될 수 있으니 전봇대 옆에 가면 안돼.

③ 아이쿠, 날아다니는 물건에 맞으면 다치니까 재난방송을 들으며 안전한 집안에 머무르는 것이 좋겠어.

④ 빨리 우산을 버리고 나무에서 떨어져. 번개는 높은 물건에 떨어진다고~! 나무나 우산에 번개가 떨어지면 네가 위험해.

2016□□□□_□.indd 35 2016-06-15 □□ 4:31:59

3 지금 TV에서 재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재해구호협회 담당자가 재난당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보내자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가 재해구호협회 담당자라고 상상하며 말풍선에 호소하는 글을 써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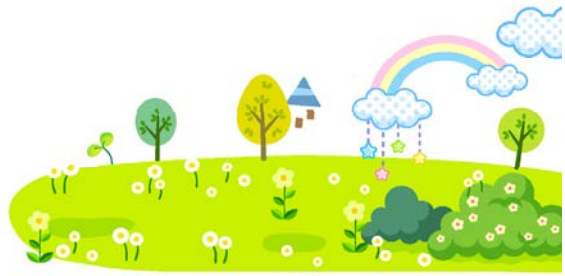
우리 함께 따뜻한
손길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불시에 발생하는 각종 재난 시 국민의연금품의 모집과 배분을 통하여 재해의 복구 및 이재민을 효율적으로 돕기 위해 1961년 설립된 법정 재해구호단체입니다. 협회는 50여 년 동안 1조 원의 성금과 3천만여점의 물품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협회 소개는 홈페이지(http://www.relief.or.kr)를 참조하세요.

2016□□□□_□.indd 36 2016-06-15 □□ 4:32:00

14 "아, 뜨거워"



욕실에서 샤워하다가 물이 조금이라도 뜨거우면 저절로 "앗, 뜨거워"하며 깜짝 놀랍니다. 엄마가 지금 막 타주신 코코아를 먹을 때는 "후~후~" 식혀서 마시죠. 뜨거우면 입을 데이니까요. 화상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늘 조심해야하는 사고입니다.

1 **화상사고의 70~80%가 집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곳은 아기와 함께 사는 집입니다. 화상을 일으키는 것이 어디에 있나요? 끓는 물, 뜨거운 다리미,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라면… 등 집 안에서 일어날 수있는 화상의 원인을 찾아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주방, 식탁, 거실에 각각 3개씩 모두 9개의 화상원인이 있습니다.**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서 보글보글 끓는 냄비	( )
정수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	( )
도마 위의 야채	( )
김이 모락모락 나오는 전기밥솥	( )
식탁	
물이 끓는 커피포트	( )
뜨거운 국	( )
뜨거운 물을 넣은 컵라면	( )
식탁위의 과일	( )
거실	
탁자 위에 놓은 뜨거운 코코아	( )
다림질을 하다가 잠깐 바닥에 놓은 다리미	( )
어질러진 장난감	( )
콘센트에 젓가락을 집어넣는 아기	( )

2016□□□□_□.indd 37 2016-06-15 □□ 4:32:00

활동날짜	년	월	일	요일	
참고신문	년	월	일	신문(일보)	면
참고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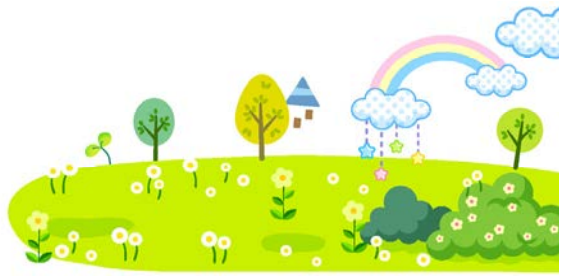
2 만약 화상을 입었다면 병원에서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병원에 가기 전 어떤 응급처치를 해야 할까요? 10~20분 동안 응급처치만 잘해도 화상 정도를 1단계 정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올바른 응급처치 하나를 찾아 동그라미(○) 표시, 잘못된 응급처치 3개를 찾아 가위표(X) 표시 하세요.

흐르는 찬 물에 화상부위를 식힌다.	( )
된장을 화상부위에 바른다.	( )
소주를 화상부위에 붓는다.	( )
얼음을 화상부위에 댄다.	( )

3 화상전문병원 담당자가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하는 문자를 보내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안내해야할까요? 위에서 공부한 내용을 참고해 안내문을 써보세요

2016□□□□_□.indd 38 2016-06-15 □□ 4:32:00

15 신나는 여름, 안전한 물놀이



무더운 여름에는 물놀이만한 신나는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설마"하고 방심하면 사고가 종종 생깁니다. 물놀이도 안전이 우선되어야 즐겁습니다. 다음의 기사를 읽고 질문에 답해보세요.

물놀이 안전사고 대비법

본격적인 여름방학이 시작되며 전국의 계곡, 하천, 해수욕장으로 물놀이를 떠나는 가족피서객이 늘어나고 있다. 시원한 계곡이나 바다에서 즐기는 물놀이는 아이들이 즐겁게 한여름 무더위를 잊을 수 있는 최고의 피서방법이다. 하지만 물놀이 중에는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을 알아봤다.

'아차' 하는 순간 사고… '안전수칙'은 생명수칙!

물에 들어가기 전 가벼운 준비운동은 필수
마사지 등 간단한 응급조치법 미리 알아두고
껌·사탕 등 응급상황시 위험 요소는 피해야

■물놀이 전 준비운동은 '필수'

꽉 막힌 도로를 지나 물놀이 장소에 도착한 아이들이 계곡이나 바다를 보자마자 물로 뛰어들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적절한 준비운동 없이 곧장 차가운 물 속으로 뛰어드는 것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 몸의 각종 근육과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물놀이 전 10분 간 가벼운 준비운동을 통해 다리부터 팔, 어깨 등 각종 근육들을 이완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때 다리 운동은 물놀이 중 일어날 수 있는 다리 경련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옆구리 운동은 상체의 근육을 이완시켜 심장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준비운동을 마쳤다면 발이나 손 등 심장에서 먼 신체부위부터 심장까지 골고루 몸을 적신 후 천천히 물에 들어간다. 차가운 계곡이나 바다로 갑자기 다이빙을 하거나 급하게 뛰어드는 행위 역시 심장 등에 큰 부담을 준다. 이에 대비해서 실생활에도 꼭 필요한 심폐소생술을 배워 두는 것도 가족을 위한 좋은 방법이다. 또한 음식을 먹은 직후에는 물놀이를 피하는 것이 좋다.

■간단한 응급조치법 숙지

수영 중 장딴지에 쥐가 났을 때는 장딴지를 주무르면서 무릎을 곧바로 펴고 엄지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세게 젖히도록 해주면 곧 풀린다. 또한 뛰든지 한 가지에 열중하기 쉬운 아이들이 물놀이에 넋을 놓다 보면 햇볕으로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 따라서 오전 10시~오후 2시까지는 물놀이를 피하는 게 좋다. 햇볕 차단지수 15 이상인 선크림을 물놀이 30분전에 발라주는 것도 필수다. 피부가 벌겋게 티거나 물집이 생길 경우 찬 우유나 찬물로 마사지해 주면 좋다. 아이가 물에 빠졌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반드시 뒤쪽에서 접근해야 한다.

■물놀이 중 껌, 사탕은 피해야

준비운동과 안전용품을 챙겼다고 모든 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물에 들어가기 전 아이에게 위험이 될 요소는 없는지 꼼꼼히 챙겨줄 필요가 있다. 먼저 잠금장치 없이 쉽게 벗겨지는 샌들은 물놀이하는 아이들에게 매우 위험하다. 물놀이 도중 샌들이 벗겨져 물에 떠내려가면 아이들은 물 깊이 등을 따지지 않고 반사적으로 신을 건지려 하기 때문이다. 아이가 입 안에 껌이나 사탕등을 문 채 물놀이를 하지 않도록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물에 빠지는 등의 긴급 상황에서 껌이나 사탕을 물고 있을 경우 기도를 막아 호흡을 방해할 수 있다.

이밖에 물놀이 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물놀이를 중단하도록 사전에 아이에게 교육을 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는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근육 경련은 물이 차거나 근육이 피로할 때 가장 일어나기 쉽다. 만약 경련이 일어났다면 먼저 아이를 편한 자세로 만들어 준 뒤 경련 부위를 주무르며 마사지 해준다. 또한 어린이와 관련된 수난사고는 어른들의 부주의와 감독 소홀에 의해 일어나는 만큼 즉각 구조가 가능한 위치에서 아이들을 살펴봐야 한다.

■물놀이 뒤 질병 관리

물놀이에서 얻는 질병으로는 눈과 귀의 질병이 가장 흔하다. 물놀이 뒤 깨끗한 물로 눈을 씻어주거나 귓속을 잘 말려야 한다. 눈 질병으로는 눈이 붉게 충혈되고 눈곱과 눈물이 심해지는 유행성 결막염이 대표적인데, 바이러스 질환으로 특별한 치료법이 없으며, 대부분 저절로 낫는다. 다만 증상이 너무 심하다면 안과를 찾아 증상을 해결해주는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물놀이 뒤 귀가 가렵고 아프며 진물이 나면 외이도염 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물놀이 뒤 면봉으로 귓속을 닦다가도 생길 수 있으므로 면봉 사용을 피한다. 물놀이 뒤에는 옆으로 뉘어서 물이 저절로 나오게 해야 한다. 물놀이 중에 과다한 자외선 노출로 햇빛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자외선 차단제 등을 챙기는 것도 필요하다. 수영장의 염소 성분이 피부와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이용 뒤 깨끗하게 씻어내면 좋다.

박광수기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수칙

▲음주 후 수영할 때 사고발생 위험이 크므로 금지 또는 자제한다.
▲ 수영을 하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고자 반드시 준비운동을 한다.
▲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을 적신 후 들어간다.
▲ 수영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땅겨질 때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한다.
▲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하다.
▲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전구조 이전에 무모한 구조를 삼가야 한다.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들지 않는다.
▲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혼자 수영하지 않으며 주위의 물건들을 이용한 안전구조를 한다.
▲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몹시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는다.
▲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장시간 계속 수영하지 않으며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는다.

※ 출처: 경기일보, 2015년 8월 5일 18면

1 안전한 물놀이를 하기 위한 준비행동 등을 짧게 적어봅니다.

구분	나의 안전한 행동
물놀이하기 전 준비	
물놀이 중 조심할 것	
물놀이 마치고 해야 할 것	

2016□□□□_□.indd 39 2016-06-15 □□ 4:32:02

2 아래는 물놀이를 하면서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왜 위험할까요?

상황	위험한 이유

3 위 신문기사에는 물놀이 안전수칙이 잘 나와 있어요.
이 가운데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안전수칙 세 가지를 골라 아래 적어봅니다.

1

2

3

2016□□□□_□.indd 40 2016-06-15 □□ 4:32:02

VISA

축하합니다

_____ 학교 _____ 학년 _____ 반 이름 _____

위 학생은 '재난안전교육 패스포트 2016' 활동 주제를 수행했습니다.

담당교사(또는 부모님) 서명 _____

증 명

한국신문협회는 '재난안전교육 패스포트 2016'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음을 증명합니다.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_____

2016□□□□_□.indd 41 2016-06-15 □□ 4:32:02

한국신문협회 회원 신문사 사이트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국민일보
http://www.kmib.co.kr

내일신문
http://www.naeil.com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매일경제
http://www.mk.co.kr

MT 머니투데이
http://www.mt.co.kr

문화일보
hppt://www.munhwa.com

서울경제
http://www.sedaily.com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

세계일보
http://www.segye.com

스포츠서울
http://www.sportsseoul.com

스포츠조선
http://sports.chosun.com

전자신문
http://www.etnews.com

ChosunMedia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중앙일보
http://joongang.joins.com

한겨레 THE HANKYOREH
http://www.hani.co.kr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

한국일보
http://hankookilbo.com

헤럴드경제
http://biz.heraldcorp.com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江原日報
http://www.kwnews.co.kr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

경남신문
http://www.knnews.co.kr

2016□□□□_□.indd 42 2016-06-15 □□ 4:32:03

경남일보
http://www.gnnews.co.kr

경북매일신문
http://www.kbmaeil.com

경북도민일보
http://www.hidomin.com

경북일보
http://www.kyongbuk.co.kr

경상일보
http://www.ksilbo.co.kr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

光州日報
http://www.kwangju.co.kr

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

대구일보
http://www.idaegu.com

대전일보사
http://www.daejonilbo.com

每日新聞
http://www.imaeil.com

부산일보
http://www.busan.com

영남일보
http://www.yeongnam.com

울산매일
http://www.iusm.co.kr

全羅日報
http://www.jeollailbo.com

전북도민일보
http://www.domin.co.kr

全北日報
http://www.jjan.kr

제주新보
http://www.jejunews.com

중도일보
http://www.joongdo.co.kr

중부매일
http://www.jbnews.com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

충청투데이
http://www.cctoday.co.kr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2016□□□□_□.indd 43 2016-06-15 □□ 4:32:03

발 행 일 | 2016년 6월 24일 초판 제1쇄 발행
지 은 이 | 최상희(경향신문 편집국 차장)
심옥령(청라달튼외국인학교 초·중등 교장)
박미영(한국NIE협회 대표)
발 행 인 | 이병규
펴 낸 곳 | 한국신문협회
주 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번지 프레스센터 13층
전 화 | 733-2251~2
팩 스 | 720-3291
홈페이지 | www.presskorea.or.kr
후 원 |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posco

※이 책자는 언론진흥기금을 지원받아 발간되었습니다.

2016□□□□_□.indd 44 2016-06-15 □□ 4:32:03